

노인용 코하우징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 옥 경*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권 오 정 (건국대학교 디자인문화대학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공동체 생활을 원하는 적은 수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거단지를 구성한 것으로서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공동식사를 통해 고독감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이웃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밀한 이웃관계를 갖게 되어 유사시 서로 돕는다는 보호시스템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주거방식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웃간의 교류나 공동체생활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주거 형식을 갖춘 코하우징을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국내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로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8부를 수거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된 17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의 전체 평균은 3.76점이었고 각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이웃교류 및 경제의식(요인 1)', '공동체 구성의식(요인 2)', '거주자 참여 및 권리의식(요인 3)', '타인 배려의식(요인 4)', '공동활동의식(요인 5)' 등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 주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 이웃과의 친밀정도, 지역사회강좌/행사 참여, 사회활동 참여정도 등의 변인이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주요 변인이었다. 즉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과 이웃과의 친밀정도가 높은 집단, 지역사회강좌/행사에 참여하는 집단,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요구했던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특성은 다음과 같다.

노인용 코하우징은 전원주택지에 위치하면서 공고를 통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 구성되고, 개별주택이 10가구~29가구인 단지 규모로 임대형 공급방식을 취한다. 주택유형 2층~3층정도의 연립주택, 각각의 개별주택의 규모는 20평~29평으로 2개의 침실과 개인정원을 갖추어 계획한다.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특성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의존도, 사회활동 참여정도, 장기 거주지역 등의 변인이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낸 대표적인 변인이었다. 또한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으로는 텃밭과 정원, 교통은행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